

윤리와 사상 정답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1	(3)	2	(4)	3	(1)	4	(5)	5	(2)
6	(1)	7	(1)	8	(4)	9	(4)	10	(2)
11	(3)	12	(5)	13	(4)	14	(4)	15	(5)
16	(3)	17	(5)	18	(3)	19	(2)	20	(3)

해설

1. [출제의도]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하늘이 부여한 선한 마음인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자아가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존재할 뿐이며 독립된 자아나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삼독(三毒), 즉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 고통이 없는 경지인 열반에 이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고, 각자가 태고 난 성향에 잘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종사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공자와 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정명(正名)을 주장하며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인위(人爲)라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보고, 군주는 백성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무위(無爲)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우연히 의무와 일치했을지라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이황(李滉), 을은 이이(李珥)이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理氣互發)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으로 보았다. 이이는 발하는 것은 기이고, 빌하는 것은 칠정이라고 보았다.

까닭은 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감정이라고 보고, 칠정 중 선한 감정은 사단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 각 개인의 감각적 경험에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진리관을 비판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은 오직 무지 때문이라고 보았다.

8.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며, 모든 폐악에는 오직 양적 차이만 있음을 주장하였다. 밀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고장한 기능에서 나오는 폐악을 인간의 동물적 본성으로 느끼는 폐악보다 더 선호한다고 보고, 폐악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9.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신이 곧 자연이며,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내재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최고의 행복은 자연 그 자체인 신을 인식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 만족일 뿐이라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종산교와 동학 비교하기

갑은 종산교를 창시한 강일순, 을은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이다. 종산교에서는 원한을 풀고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을 강조하며, 현세에서 후천개벽을 통해 지상 낙원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학에서는 경천사상을 토대로 유·불·도 사상을 융합하고자 하였으며,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지눌의 사상 이해하기

가상 대화의 '스승'은 지눌이다. 지눌은 단박에 깨달은 뒤에도 습기(習氣)를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 쌍수(定慧雙修)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데카르트, 을은 베이컨이다. 데카르트는 진리 탐구를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한 후 더 이상 의심 할 수 없는 확실한 명제를 찾는 방법적 회의론을 주장하였다.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과학의 실험 정신에 근거한 진리 탐구 방법인 참된 귀납법을 강조하였다.

13.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상대적 인식과 외물(外物)에 얹매이는 삶에서 벗어나 도(道)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사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보고,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心齋)를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국가와 천상의 국가를 구분하고, 지상의 국가는 신을 멸시하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국가이며,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하고 신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국가라고 보았다. 그는 물질보다 인간을, 인간보다 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흄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행위의 도덕적 선악이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是認)과 부인(否認)의 감정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도덕성의 기초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만물에 이치[理]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고,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맑을 지극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 따로 어떠한 이치도 없으므로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개별 사물에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희와 왕수인은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存天理去人欲]고 보았으며, 선한 삶을 위해 도덕적 맑과 행함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스토아학파의 에피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으로 폐악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여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토아학파는 신과 자연의 본성이 이성을 따름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이 금수와 달리 하늘로부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영지의 기호(嗜好)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단(四端)을 충족함으로써 사덕(四德)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순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악한 본성을 지닌 백성을 선하게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외적 규범인 예(禮)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오직 인위[僞]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庸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선을 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